

## 산업안전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최대의 배려



한전기공(주) 제주사업소  
전 흥 기 소장

제 주의 전력소비 형태는 관광도시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공장생산활동이 왕성한 육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육지는 주

간이 전력소비가 최대치인 반면 제주는 저녁시간이 전력소비가 최대치를 나타내는 주저야고(晝低夜高)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소비형태는 섬이 갖는 지형적인 독립성과 맞물려 제주소비전력의 자체 공급이라는 목표를 위해 많은 발전설비의 증설을 가능하게 하였다.

내연력, 가스터빈, 증기터빈 등 제주에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발전설비가 3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설비가 운용되는 현장 요소요소와 생산된 전력이 제주전역에 공급되는 송전분야의 작업현장에는 한전기공(주)제주사업소(소장 전흥기)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발전설비의 세계적인 정비전문회사를 지향하는 한전기공(주)의 제주사업소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발전설비의 특성상 지속적인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전설비의 크고 작은 결함을 완벽정비하

여 지속적인 전력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이 중간 손실 없이 수용가에 까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송전설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발전설비 정비라는 업무에는 수많은 단위기기로 구성된 발전설비의 특성상 정비수행 직원의 생명과 회사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크나큰 잠재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설비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그 어떤 직무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홍기(田弘基) 제주사업소장의 안전경영 의지이다.

특히 이사업장은 '82년 2월부터 '93년 5월까지 건설업종 최초의 무재해 10배 달성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사업장 재해 제로화 운동을 바탕으로한 선진 안전기법의 점진적 도입 등 현재 사업소가 전개하고 있는 각종 안전활동은 동종업종 최초의 무재해 10배 달성이라는 업적을 재현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며 이러한 안전활동은 기본을 준수하는 안전 작업절차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침 출근과 함께 시작되는 발전소 현장 안전순

찰과 전 직원의 아침 보건체조는 안전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되며 정비작업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실시하는 유해작업지시서 검토와 위험예지훈련은 본능적인 습관으로 체질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미비사항을 점검, 기록하여 위험예지 카드를 비치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에 최상의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매달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노사가 합동으로 전 사업소적인 행사로 시행하며 아울러 매달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질적인 수준향상을 통해 안전의식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시청각 교재활용과 외부인 부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통해 출역 여부를 결정하며 직원과 동일 수준의 안전교육을 통해 회사 밖의 안전의식 확산에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발전설비 완전분해 정비(O/H공사) 공사에 동원되는 외부인 부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통해 출역 여부를 결정하며 직원과 동일 수준의 안전교육을 통해 회사 밖의 안전의식 확산에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이다.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노사협력의 상호보완적인 여

러 모습들은 이 사업소의 산업안전에 있어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활동의 토대 위에 선진국의 대표적 안전기법인 STOP기법 및 T-4S운동을 점진적으로 토착화시킴으로써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안전활동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안전경영을 표방하는 회사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안전은 책상이 아닌 작업 현장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1일 2회 이상의 안전순찰을 시행하고 있는 전흥기 사업소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매일매일은 남은 날들의 첫날이라는 마음으로 무재해 목표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안전이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이며 원칙이라는 단순명제가 통용되는 사업소를 만들기 위한 제주사업소의 안전예방 활동을 통해 최우수 안전사업소와 21세기 세계 초일류 안전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전기공(주) 제주사업소 임·직원은 오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무재해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